

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주요 법안 6개 통과

- ①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상시 선(先)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‘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’
 - ② 사고차·침수차 위험 100% 보호, 중고차를 믿고 사는 ‘자동차관리법’
 - ③ 추석 공휴일 전날을 아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남북아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
 - ④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과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‘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’
 - ⑤ 부정한 연구개발에 대한 제재와 연구윤리 확립 및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‘국가연구개발혁신법’
 - ⑥ 탄소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‘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’
- ※ 33 여야 협의체(정재위 의장 원내 수석 행안위 간사) 논의 법안인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승격의 ‘정부조직법’

□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(제403회 8차)에서 우리당 중점법안 6건 등 총 98여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

□ **‘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’(당론법안)**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선(先)보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적극 지원하고 방역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

□ **‘자동차관리법’(중점법안)**은 현재 중고차 매수인이 사고 및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도일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침수의 경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안전에 문제 있는 자동차에 대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명령하고, 중고차매매업의 허위광고 및 차량 품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보증 및 공제규정,

지분 양도 및 취득,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‘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’은 추석 공휴일 전날(음력 8월 13일)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
- ‘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’은 주요국들의 기술경쟁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기술육성 기반조성, 전략기술 인력양성, 국내외 협력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‘국가연구개발혁신법’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부정한 연구개발에 대한 제재와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 및 공정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‘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’은 디지털 전환,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의 활력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.
- 이와 함께 여야 3+3협의체에서 논의·합의했던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승격 내용에 정부조직법도 처리되었습니다.
- 경제위기 속에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

2023. 2. 27. (월)



정책위원회 의장 김 성 환

번호	법안명	주요내용	비고	
1	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(소상공인지원법)	감염병 등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피해 예상시 선보상 지원 근거 마련	당론 법안	산자위
2	자동차관리법 (중고차, 침수차 안전거래법)	이제 중고차도 믿고 사고팔고! 사고·침수차량 100% 권리보장	중점 법안	국토위
3	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	추석 공휴일의 전날(음력 8월 13일)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 개정안		외통위
4	국가전략기술 육성특별법 (기술패권 경쟁 시대 대비를 위한 국가중점기술 개발 및 육성법)	국가전략기술의 조기 개발·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특례 근거 마련		과방위
5	국가연구개발혁신법 (부정행위명단 공개 확대를 통한 연구윤리 강화법)	부정행위 연구개발에 대한 제재 처분과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연구환경 조성 근거 마련		
6	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(탄소 중립, 디지털전환 촉진법)	탄소 중립이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		산자위